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012
----------	------

제안연월일 : 2024. 10. 29.

제안자 : 김영배 · 박홍근 · 위성락
김원이 · 김병주 · 강준현
이재정 · 허영 · 박홍배
이용선 · 한정애 · 박선원
홍기원 · 박지원 · 윤후덕
이인영 · 권칠승 · 차지호
정동영 · 윤건영 · 조정식
추미애 · 박범계 · 이재명
부승찬 · 황희 · 박희승
안규백 의원(28인)

주 문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3일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으며, NATO 역시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및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4일 러시아 하원은 이를

비준하였다. 이 조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한반도 분쟁 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사실상 북-러간 군사동맹이 현실화되고 지속적인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긴장관계 극대화 등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미국과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을 우회지원 한 바 있다. 더군다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확인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등 강경발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규탄하면서, 즉시 북한군의 철군을 촉구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한 군 병력을 즉각적으로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당국과 주변국들이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에게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적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미중 패권경쟁 심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역내 및 세계의 안보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이념편향적 진영외교와 일방적인 대북정책 추진 등으로 한미일, 북중러 간 진영간 대립이 강화되고 있음.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된 후 러시아는 동북아 상황에 따라 전쟁개입이 가능토록 함. 우리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에 북한은 1,500여명의 전투병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동시켜 훈련중이며, 약 1만여 명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라고 함. 실질적인 북-러 군사 동맹화에 따른 국제적인 파장이 커지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직접적인 전쟁참여마저도 불사할 의도를 비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강경대응은 우리 전쟁의 확산과 더불어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전투병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추가 이송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등의 강경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평화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출함.